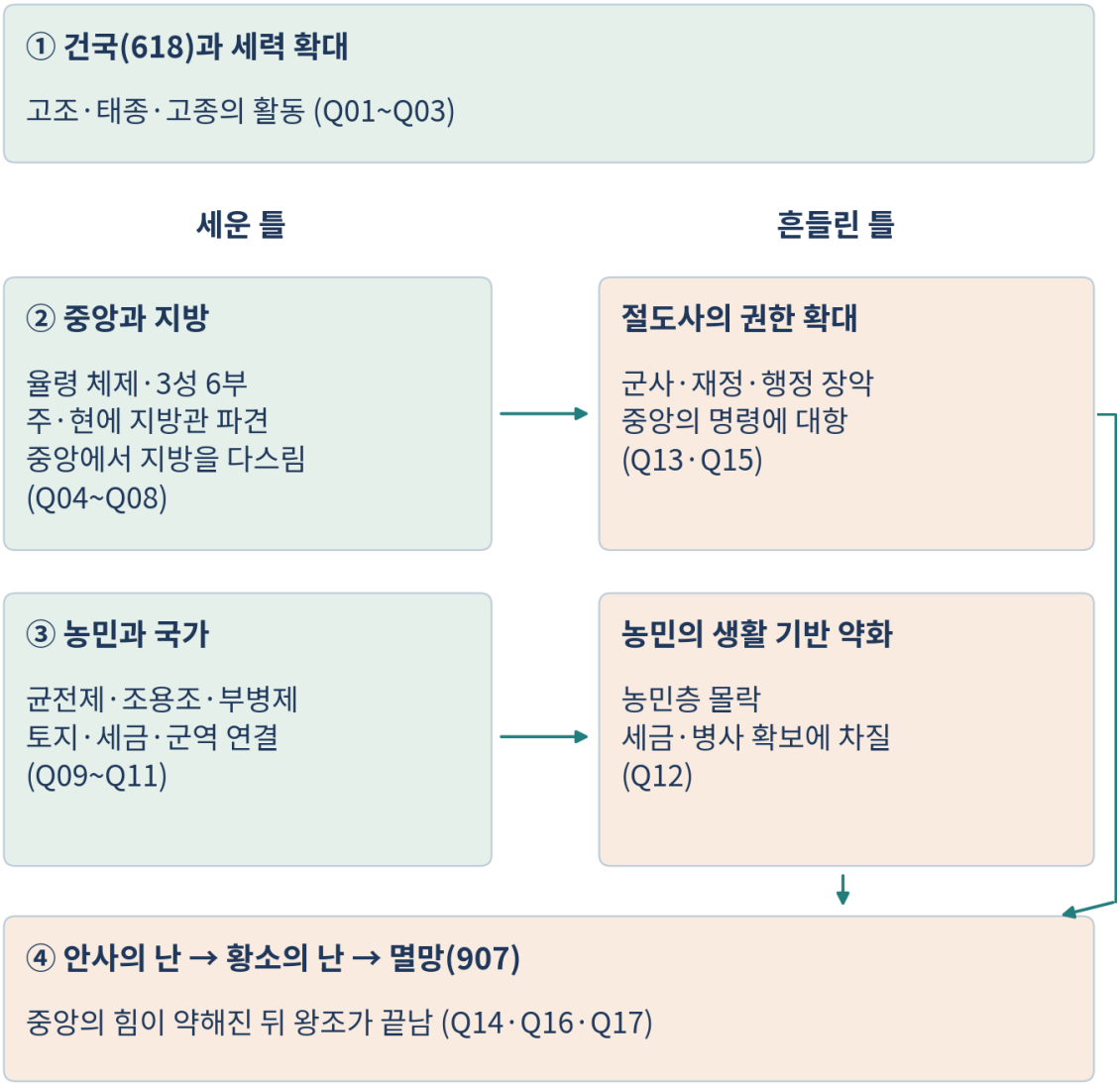
중2 역사1 · W25

당의 통치 제도와 쇠퇴

황제가 모든 마을의 세금을 직접 걷거나 국경을 혼자 지킬 수는 없어요. 당은 관리에게 일을 나누어 맡기고, 농민의 땅·세금·군사 복무를 연결해 나라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농민이 땅을 잃고, 나라를 지키던 군사령관의 힘이 커지면서 이 틀이 흔들렸어요. 당을 강하게 만든 제도는 어떻게 당의 쇠퇴와 연결될까요?

당을 세운 틀, 흔들린 틀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① 수가 무너진 뒤 당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Q01 당은 누가 세웠고, 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답** 이연(당 고조)이 **618년**에 당을 세웠고, 당은 **수의 통치 제도**를 이어받아 발전시켰어요.

수 말기에는 큰 공사와 잇따른 전쟁으로 백성의 부담이 커져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연은 이 혼란 속에서 당을 세운 인물로, 황제로서 부르는 이름은 고조예요. 그는 **장안(지금의 시안)**을 수도로 삼았고, 건국 뒤에도 여러 세력과 싸우며 통일을 이루어 갔어요.

왕실이 바뀌어도 쓸 만한 제도는 이어받을 수 있었어요. 당은 수의 관리 조직과 관리 선발 제도 등을 **계승(앞에서 이룬 것을 이어받음)**하여 나라를 운영했어요.

수의 혼란에서 당의 건국으로



Q02 당 고조·태종·고종은 같은 사람인가요?

> **답** **고조·태종·고종**은 서로 다른 황제로, 고조가 세운 당을 태종과 고종이 차례로 이어 다스렸어요.

고조의 본래 이름은 이연, 태종은 이세민, 고종은 이치예요. 이 세 황제는 고조 → 태종 → 고종의 순서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어요.

태종은 통치 체제를 안정시키고 동돌궐을 **복속(당의 지배 아래에 둠)**시켰어요. 서북 지방으로 영토를 넓혀 동서 교역로를 확보했어요. 고종 때에는 서돌궐을 정복했고, 신라와 연합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고조 → 태종 → 고종



고조(이연)

당 건국(618)
장안을 수도로

태종(이세민)

동돌궐 복속
서북 지방 영토 확대
동서 교역로 확보

고종(이치)

서돌궐 정복
신라와 연합해
백제·고구려 멸망

황제의 얼굴은 새로 그린 상상도예요.

> 왼쪽부터 고조·태종·고종이며, 각 인물 아래에 그 황제 때의 일을 묶었어요. (인물 상상도)



후대에 그려져 전해 오는 당 태종의 초상이에요. (국립고궁박물원·타이베이, 「唐太宗半身像」, 공개 이미지 CC0)

헷갈리기 쉬워요

✕ 고조·태종·고종은 한 사람의 다른 이름이다.

◯ 고조(이연)·태종(이세민)·고종(이치)은 서로 다른 황제이다.

Q03 당은 왜 북쪽과 서쪽으로 세력을 넓혔나요?

답 주변의 위협을 줄이고 지배 범위를 넓히며 **동서 교역로**를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당의 북쪽과 서북쪽에는 **돌궐**이 있었어요. 돌궐은 유라시아 초원에서 활동한 튀르크계 유목 세력으로, 가축을 기르며 옮겨 다녔고 동돌궐과 서돌궐로 나뉘기도 했어요. 당은 전쟁과 외교로 이들을 누르면서 국경을 안정시키고 비단길을 따라 서쪽으로 영향력을 넓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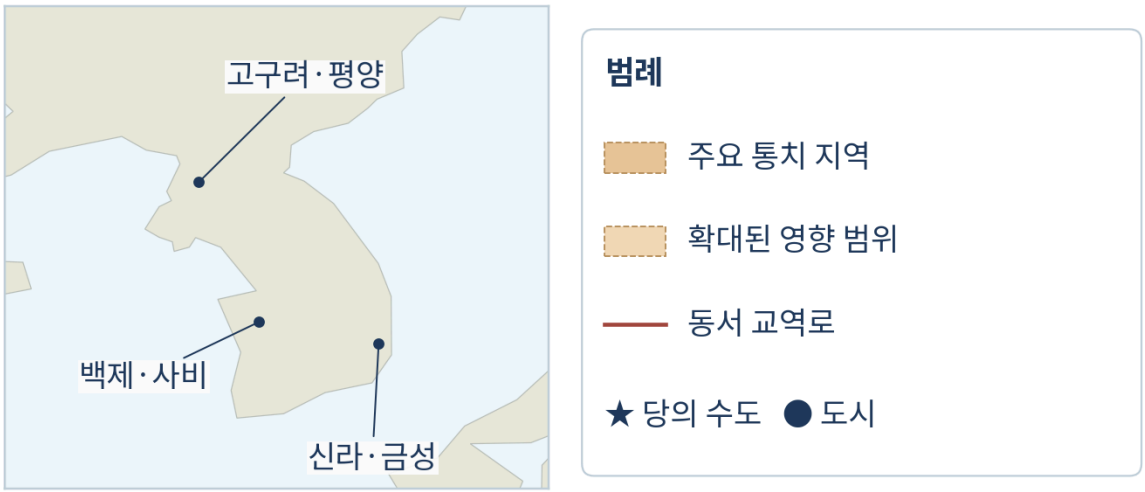
동쪽에서는 신라와 연합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이후 당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했지만, 신라와의 전쟁에서 밀려 한반도 지배를 포기했어요.

지도 번호·방향	상대	황제	결과
① **북쪽**	동돌궐	태종	복속
② **서북쪽**	서돌궐	고종	정복
③ **동쪽**	백제·고구려	고종	신라와 연합해 백제(660)·고구려(668) 멸망

당의 세력 확대와 동서 교역로



한반도의 주요 나라와 수도(660년 이전)



7세기 후반 무렵의 대략적 범위이며, 지배 방식·범위는 변했어요.
①②③의 나라·세력 이름은 정복 이전의 위치를 나타내요.

> ①②③은 표의 상대와 이어지고, 색 면은 7세기 후반 당의 대략적인 지배·영향 범위, 선은 동서 교역로를 보여 줘요.

② 황제의 명령은 중앙에서 마을까지 어떻게 이어졌을까?

Q04 ‘율령 체제’는 어떤 통치 방식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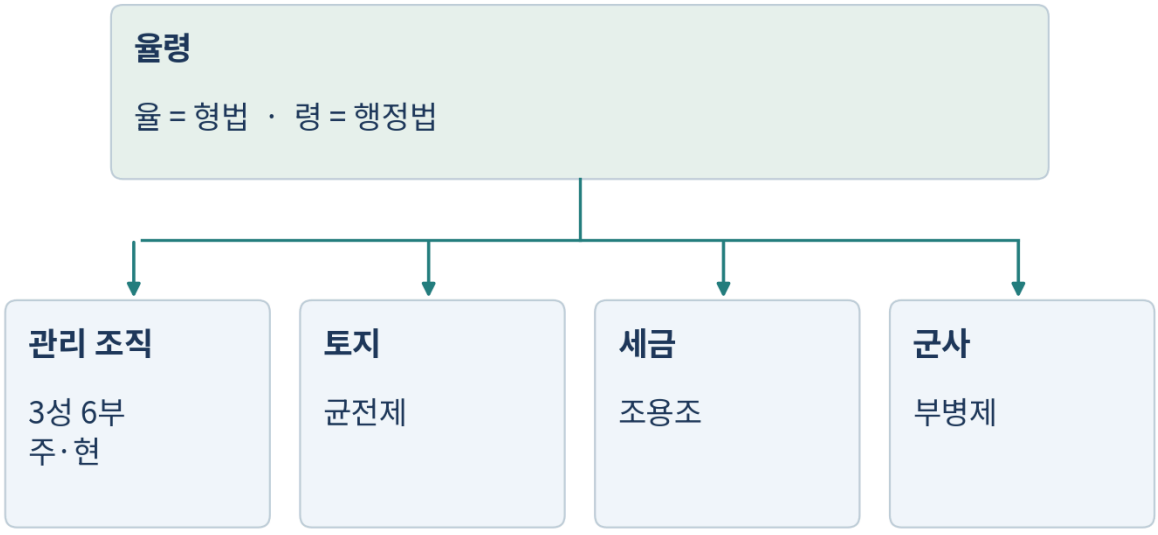
> **답** **율령 체제**는 형벌과 행정에 관한 법을 바탕으로 관리 조직·토지·세금·군사 제도를 운영한 통치 체제예요.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이에요. 형법은 범죄와 벌을, 행정법은 관리의 일과 백성의 의무 등 나라를 운영하는 일을 정한 법이에요.

아래 도식에서 율령은 네 가지 제도를 묶는 위쪽 지붕에 해당해요. 관리 조직·토지·세금·군사 제도가 법을 바탕으로 연결되어 나라를 움직였어요.

용어 **율령 체제** 율과 령을 바탕으로 여러 통치 제도를 연결해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

율령 체제: 여러 제도를 묶는 법



Q05 3성은 어떤 일을 나누어 맡았나요?

답 중서성·문하성·상서성은 **정책 입안(처음 안 만들기)·심의(살펴보기)·집행(실행하기)**을 나누어 맡았어요.

중서성은 정책과 명령의 처음 안을 만들고, 문하성은 그 내용이 적절한지 살펴보았어요.
상서성은 결정된 일을 실제 행정으로 실행했어요. 여러 관청이 일을 나누면 한 관청이 모든 일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고, 결정할 내용을 다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용어 **3성** 중서성·문하성·상서성으로 이루어진 중앙 관청. 관청은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중앙과 지방의 통치 조직



위쪽은 정책을 만들고 살펴보고 실행하는 중앙 조직이고, 아래쪽은 중앙이 보낸 지방관이 다스리는 주·현이에요.

헷갈리기 쉬워요

✕ 3성은 오늘날의 삼권 분립과 같다.

◯ 3성은 황제 아래의 관청이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나누는 오늘날의 삼권 분립과 구별한다.

Q06 6부는 무슨 일을 나누어 맡았나요?

답 **6부**는 상서성 아래에서 나랏일을 **여섯 분야**로 나누어 맡았어요.

관리의 자리를 정하는 일과 다리를 고치는 일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상서성 아래 여섯 관청이 분야를 나누어 일을 처리했어요.

관청	맡은 일	쉬운 풀이
이부	관리 인사	인사 = 관리를 임명하고 자리를 옮기는 일
호부	호적·재정	호적 = 가구와 사람의 기록, 재정 = 나라의 돈과 물자 관리
예부	외교·교육(의례·과거 포함)	나라 사이 관계·교육·시험, 의례 = 정해진 예절에 따른 의식
병부	군사 행정	군대에 관한 일을 처리
형부	사법(형벌·재판)	법에 따라 죄와 처벌을 판단하는 일
공부	토목·건축	토목 = 도로·다리·둑 등을 만드는 공사

용어 **6부** 상서성 아래에서 여섯 분야의 행정을 나누어 맡은 관청

헷갈리기 쉬워요

✕ 공부는 학교 공부를 맡은 관청이다.

◯ 공부는 공사를 맡은 관청으로, 토목·건축을 담당했다.

Q07 지방의 '주현'은 무엇이고, 누가 다스렸나요?

답 당은 지방에 **주와 현**이라는 행정 구역을 두고, 중앙에서 **지방관**을 보내 다스렸어요.

위의 조직도에서 지방은 주 → 현으로 이어져요. 주 아래에 현을 두었고, 지방관은 주민을 파악하고 세금을 거두며 지역의 일을 처리했어요. 지방관은 중앙 정부의 임명을 받아 일하는 관리예요.

이렇게 중앙이 지방에 관리를 보내면 황제가 직접 모든 마을을 다니지 않아도 명령이 지방으로 이어져요. 이는 중요한 통치 권한을 중앙에 모으는 **중앙 집권**과 연결돼요.

용어 **주현** 주와 현을 함께 이르는 말로, 당의 지방 행정 구역

Q08 과거제가 있었는데도 왜 당을 귀족 사회라고 하나요?

답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길이 있었지만, 귀족 가문이 **교육 여건·인맥(사람들과 맺은 관계)·가문의 지위**에서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귀족은 높은 신분과 관직을 바탕으로 특권을 누리던 지배층이에요. 당은 수의 과거제를 이어받았지만, 유력한 귀족 집안은 교육과 관직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했어요.

제도	현실
과거제: 시험으로 관리 선발	귀족 가문: 교육 여건·인맥·가문의 지위에서 유리

용어 **과거제**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③ 농민의 땅과 세금은 군대와 어떻게 연결됐을까?

Q09 국가는 왜 농민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나요?

답 농민이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게 하고, 그 농민을 바탕으로 **세금과 군사력**을 확보하려 했어요.

당은 균전제로 성인 남성 농민 등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했어요. 농민은 받은 땅을 **경작(땅을 일구어 농사짓기)**하며 생활했고, 국가는 그 농민에게 **세금(조용조)과 군역(부병제)을 부과**했어요. 여기서 군역은 군사 복무의 의무예요.

농민이 곡식과 옷감을 생산하고 병사로 복무할 수 있으려면 생활할 바탕이 필요했어요. 토지 지급에는 대상·조건이 정해져 있었고, 지역의 토지 사정에 따라 실제 지급은 달랐어요. 받은 땅 가운데에는 나이가 들거나 죽으면 나라에 돌려주는 땅도 있었어요.

용어 **균전제** 국가가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해 경작하게 한 제도



문서를 든 관리가 말뚝과 줄로 표시한 밭의 경계를 농민에게 가리키며, 농사지을 토지를 지급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상상도)

토지·세금·군역이 연결된 틀



> 윗부분의 토지 지급은 농민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아랫부분의 세금과 군역은 국가의 재정·군사력으로 이어져요.

Q10 '조용조'에는 왜 '조'가 두 번 나오나요?

> **답** **조용조**는 조(곡물)·용(노동)·조(옷감)으로, 소리가 같은 두 '조'는 서로 다른 부담을 가리켜요.

조용조에서 앞의 조는 곡물이고 뒤의 조는 옷감이에요. 농민은 국가에 곡물과 옷감을 내고, 정해진 공사 등에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구분	내용	국가가 얻는 것
조(곡물, 租)	곡물을 냄	관리와 군대 등에 필요한 식량
용(노동, 庸)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이를 대신한 현물을 냄	공사 등에 필요한 일손·물자
조(옷감, 調)	비단·삼베 같은 옷감을 냄	나라에서 필요한 옷감·물자

현물은 돈 대신 내는 실제 물건이에요. 용은 노동 의무와 연결되며, 일정한 경우에는 옷감 같은 현물을 내어 대신하기도 했어요.

용어 **조용조** 곡물(조)·노동(용)·옷감(조)을 부담하게 한 세금 제도

조(곡물)·조(옷감)



용(노동)



왼쪽 그림은 곡물 계량과 옷감 납부를, 오른쪽 그림은 둑을 쌓는 노동을 보여 줘요. (상상도)

헷갈리기 쉬워요

✕ 조용조의 두 '조'는 같은 부담이다.

◯ 조(곡물)와 조(옷감)는 서로 다른 부담이다.

Q11 부병제에서는 농민이 어떻게 병사가 되었나요?

답 농민은 **농사가 한가한 시기에 군사 훈련**을 받고, **전쟁이 나면 병사로 복무**했어요.

국가는 군역을 맡을 농민을 정해 부대에 넣었어요. 이 농민들은 평소 농사를 생활 기반으로 삼고, 훈련·경비(일정한 곳을 지킴)·전쟁 등의 군역을 맡았어요.

농민의 생활이 유지되어야 이런 군사 제도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어요.

용어 **부병제** 농민이 농사를 생활 기반으로 삼으며 일정한 군역을 맡은 제도



짐을 꾸리는 남자 곁의 무기와 농기구, 뒤쪽 밭은 이 병사의 생활 바탕이 농사였음을 보여 줘요. (상상도)

균전제·조용조·부병제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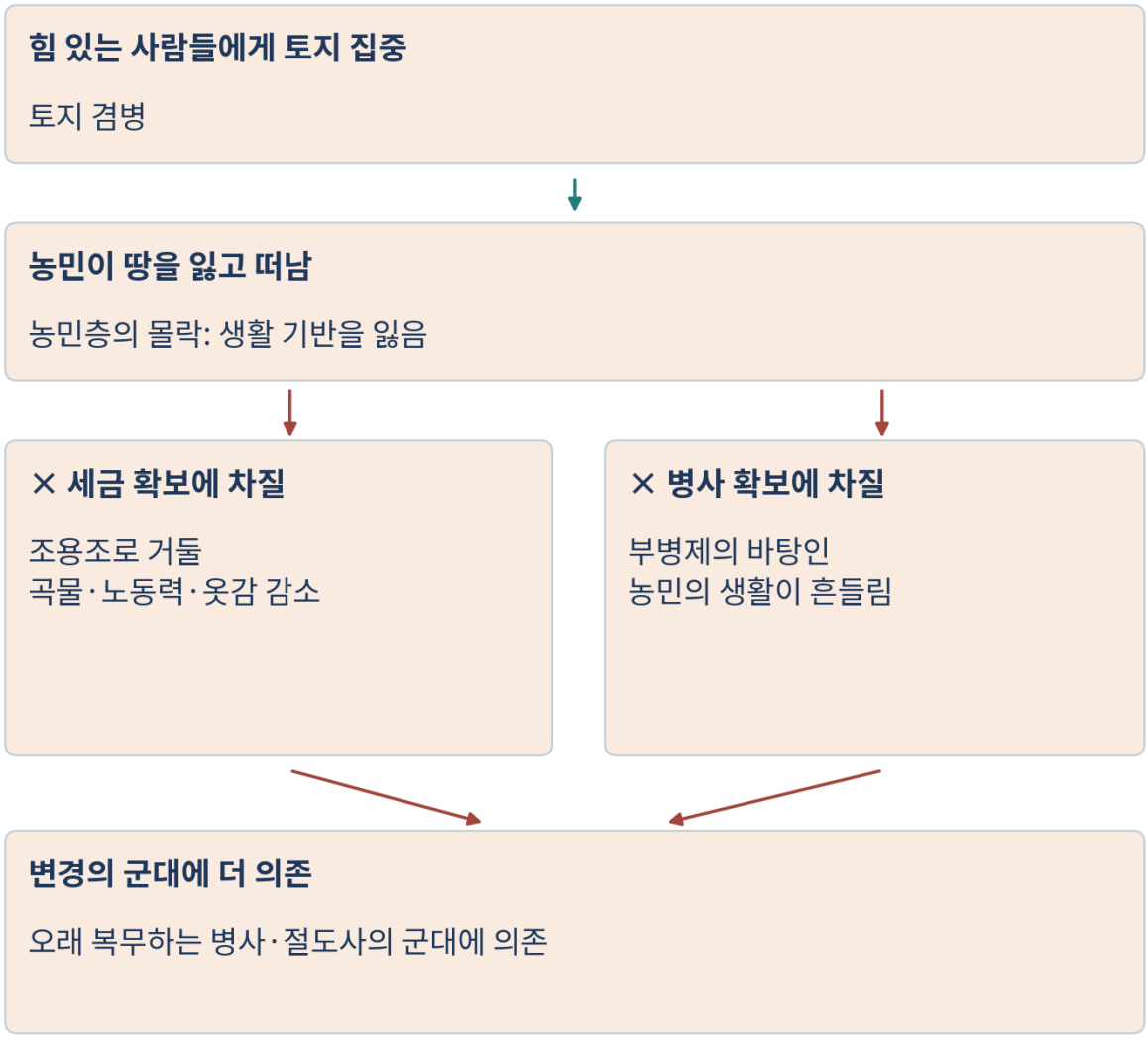
국가가 준 것·요구한 것	내용	국가가 얻는 것
균전제: 토지를 줌	농민에게 일정한 땅을 지급	세금과 군역을 맡을 농민
조용조: 세금을 요구	조(곡물)·용(노동)·조(옷감)	국가를 운영할 물자·일손
부병제: 군역을 요구	평소 농사, 일정한 군사 복무	나라를 지킬 군사력

Q12 농민이 땅을 잃으면 왜 나라까지 어려워졌나요?

답 농민의 생활이 무너지면, 국가가 **세금과 병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토지 겸병**이 늘자 농민이 땅을 잃고 떠났고, 국가는 세금과 군역을 확보하기 어려워졌어요. 국경의 전쟁도 길어져, 당은 오랫동안 복무하는 병사와 변경(나라의 경계에 가까운 곳)의 군대에 더 의존했어요. 이 변화는 안사의 난 이전부터 진행되어 반란과 전쟁으로 더 심해졌어요.

농민이 땅을 잃으면



토지 지급에 기대던 농민의 생활 기반이 끊기면, 국가의 세금과 병사 확보도 함께 흔들려요.

④ 나라를 지키던 군대가 왜 중앙을 위협했을까?

Q13 절도사는 왜 두었고, 무슨 일을 맡았나요?

답 **절도사**는 변경의 방어와 군대 지휘를 맡도록 당 정부가 임명한 군사령관이었어요.

멀리 떨어진 국경에서는 적의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해야 했어요. 당은 변경에 군대를 머무르게 하고 절도사에게 그 지역의 방어와 지휘를 맡겼어요.

누가 임명했을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당의 중앙 정부	변경에서 군대를 지휘하며 방어

한 사람이 많은 병력을 오래 지휘하면 그 지역에서 힘이 커져요. 군대를 먹이고 움직이려면 **군량(군대의 식량)**과 돈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군사 지휘에 지역의 재정·행정을 다룰 권한이 더해졌어요.

용어 **절도사** 변경의 방어와 군대 지휘를 맡도록 당이 임명한 군사령관



가운데의 군 지휘와 오른쪽의 군량 운반·기록은 변경 방어에 병력과 물자가 함께 필요했음을 보여줘요. (상상도)

Q14 안사의 난은 누가 일으켰고, 왜 큰 타격이 되었나요?

답 절도사 **안녹산과 사사명 등이 일으킨 반란(755~763)**으로, 이 반란 뒤 당 중앙 정부의 힘이 크게 약해졌어요.

안녹산은 당의 황제 **현종**의 신임(믿음)을 받아 여러 지역의 절도사를 함께 맡으며 큰 군대를 거느렸어요. 조정(황제와 관리들이 나랏일을 하는 곳)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둘러싼 다툼이 커지자, 안녹산은 755년 중앙 정부에 맞서 군사를 일으켰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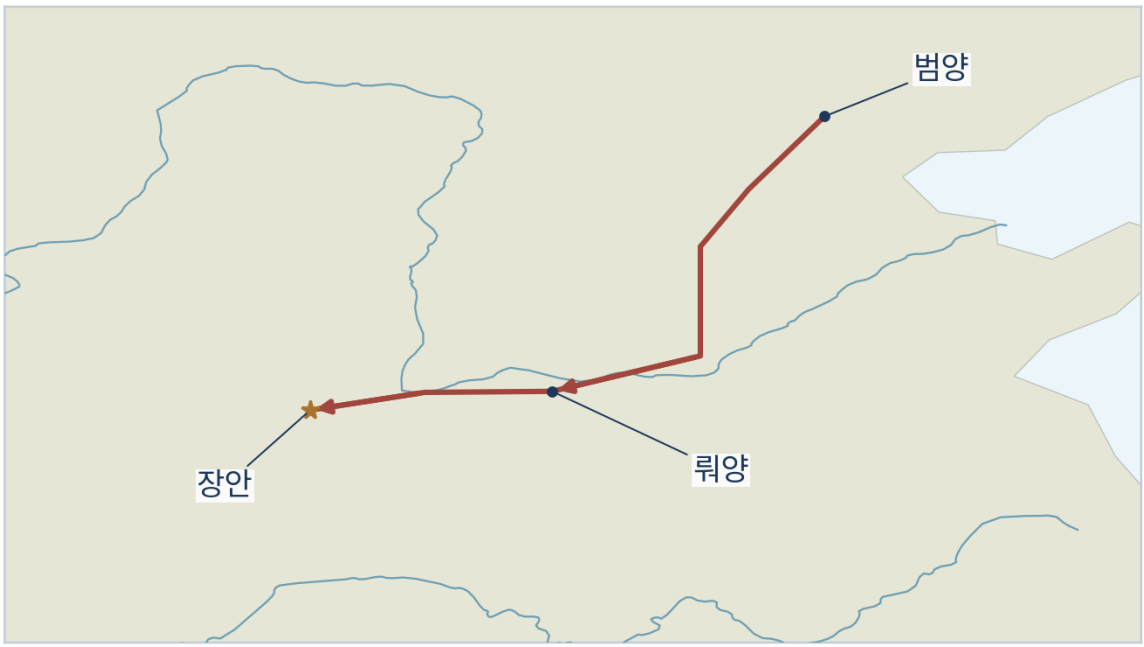
반란 세력은 **뤄양(장안 동쪽의 큰 도시)**과 수도 장안을 차지했어요. 안녹산이 죽은 뒤에도 그의 부하였던 **사사명** 등으로 반란이 이어졌고, 763년에 끝났어요. 당은 반란을 **진압(무력으로 누름)**하는 과정에서 지방 군사 세력에 크게 의존했고, 전쟁으로 농민의 생활과 세금을 거두던 기반도 피해를 입었어요.

언제	누가	어디	결과
755~763년	절도사 안녹산·사사명 등	뤄양·장안 점령	중앙 정부의 힘 약화, 지방 군사 세력에 의존

용어 **안사의 난** 안녹산·사사명 등의 반란. ‘안사’는 두 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딴 말

안사의 난: 변경에서 수도로

755년 시작 · 763년 끝



반란군의 주요 진격 방향

★ 당의 수도 ● 도시

> 범양(지금의 베이징 부근)에서 뤄양을 거쳐 수도 장안으로 향한 화살표는 변경의 군대가 중앙을 공격한 흐름을 보여 줘요.

더 알아보기 **현종과 양귀비**

현종은 양귀비를 매우 아꼈어요. 양귀비의 친척인 양국충은 조정에서 큰 권력을 잡았어요. 안녹산은 양국충과 권력을 두고 다투다가, 양국충을 몰아내겠다며 755년에 군사를 일으켰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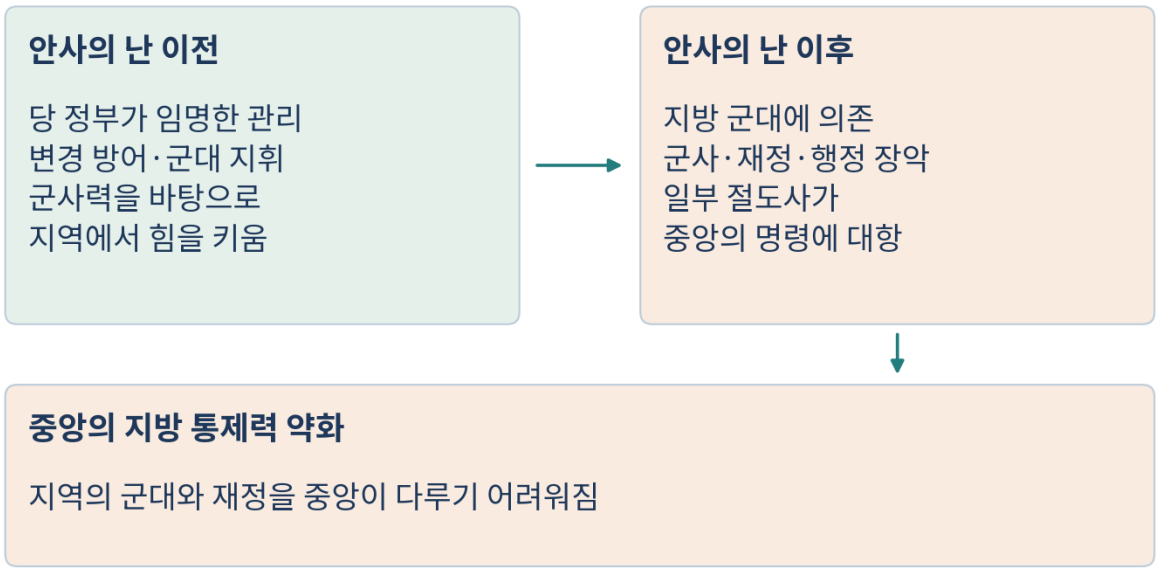
Q15 반란을 진압했는데도 왜 절도사의 힘이 더 커졌나요?

> **답** 지방 군사 세력에 의존하면서 절도사가 **군사·재정·행정 권한**을 함께 쥐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에요.

반란을 누르고 지방을 지키려면 지방 군대가 필요했어요. 일부 절도사는 군대뿐 아니라 지역의 재정과 행정까지 **장악(자기 힘으로 쥐고 다룸)**하여, 중앙에 세금을 보내지 않거나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군대와 세금을 지역 세력이 쥐면, 중앙 정부는 그들에게 명령을 따르게 하기 어려워져요. 반란 뒤 절도사의 권한이 커진 것은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진 것과 연결돼요.

절도사: 안사의 난 전과 후



> 왼쪽은 변경 방어를 맡은 관리의 역할, 오른쪽은 반란 뒤 커진 권한과 중앙 통제의 약화를 보여 주며, 중앙에 협력한 절도사도 있었어요.

Q16 황소의 난은 안사의 난과 무엇이 다른가요?

> **답** 안사의 난은 **절도사의 군사 반란**이고, 황소의 난은 당 말기 농민들의 어려움을 배경으로 일어난 **농민 반란**이에요.

당 말기에는 전쟁과 무거운 부담,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이 생활 기반을 잃는 **농민층의 몰락**이 심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소금을 몰래 팔던 상인 출신 **황소**가 이끈 반란이 커졌고, 반란 세력은 수도 장안을 차지하기도 했어요.

황소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진압 과정에서 지방 군사 세력이 더 성장했어요. 당의 힘은 더욱 약해졌어요.

구분	안사의 난	황소의 난
시기	8세기 중엽, 755~763년	9세기 후반
주도 세력	절도사 안녹산·사사명 등의 군사 세력	황소가 이끈 농민 등
성격	절도사의 반란	농민 반란
당에 끼친 영향	중앙 통치 기반 약화, 절도사의 권한 확대	당을 더욱 약화, 지방 군사 세력 성장

용어 **황소의 난** 농민층의 몰락과 불만을 배경으로 당 말기에 황소가 이끈 반란

헷갈리기 쉬워요

✕	◯
안사의 난과 황소의 난은 같은 반란이다.	안사의 난은 8세기 중엽 절도사의 반란, 황소의 난은 9세기 후반 농민 반란이다.

더 알아보기 **최치원과 「토황소격문」**

신라 사람 최치원은 당에서 관리로 일하면서 황소의 반란을 비판하는 「토황소격문」을 썼어요. 격문은 상대를 비판하거나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글이에요.

Q17 당은 안사의 난 때 바로 멸망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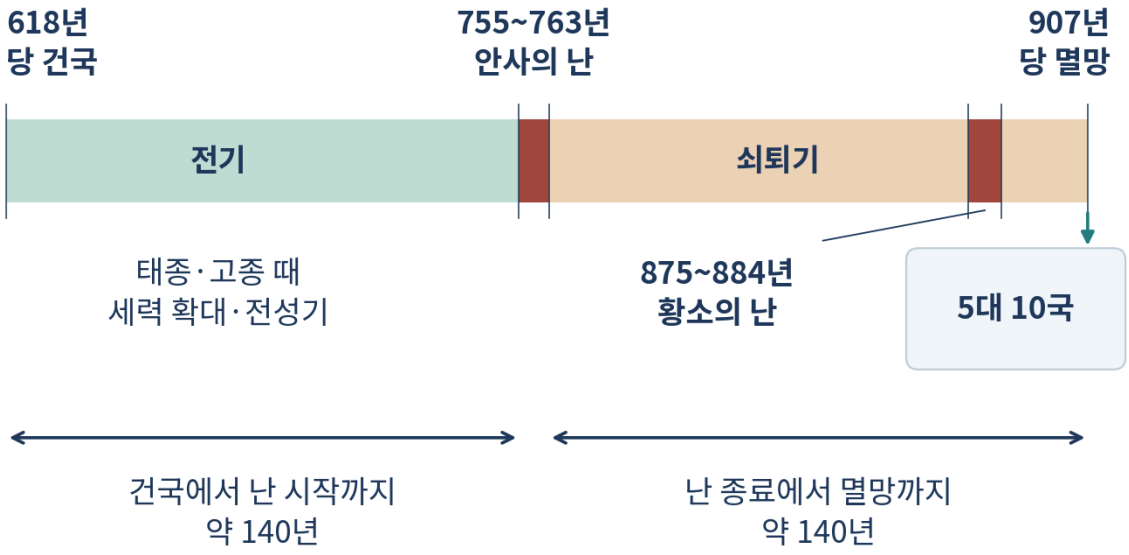
답 당은 안사의 난 뒤에도 이어졌으며, 황소의 난 등을 거쳐 약해진 뒤 **907년**에 멸망했어요.

쇠퇴는 힘이 약해지는 과정이고, 멸망은 나라나 왕조가 끝나는 것이에요. 안사의 난이 끝난 763년 뒤에도 당은 **144년** 더 이어졌어요.

황소의 난 뒤에는 **주전충** 같은 지방 군사 세력이 강해졌어요. 주전충은 황소의 난에 가담했다가 당에 항복해 절도사가 된 인물이에요. 그가 907년 당을 무너뜨린 뒤, 중국은 여러 세력이 나누어 다스리는 5대 10국 시대로 이어졌어요.

용어 **5대 10국** 중국 북쪽에 다섯 왕조가 차례로 서고, 주로 남쪽과 주변 지역에 여러 나라가 나뉘어 있던 시대예요. 그중 대표적인 열 나라를 '10국'이라고 불러요.

당의 성립에서 멸망까지



618~907년 막대는 실제 시간 길이에 비례해요.

> 안사의 난이 끝난 뒤부터 당의 멸망까지도 약 140년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막대의 길이로 나타나요.

헷갈리기 쉬워요

✕ 안사의 난이 끝난 763년에 당도 멸망했다.	◯ 안사의 난은 쇠퇴의 큰 계기였고, 당의 멸망은 907년이다.

시험 용어 모음

용어	한 줄 뜻	함께 연결할 말
율령 체제	형법·행정법을 바탕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	관리 조직·토지·세금·군사
3성 6부	중앙 관청의 역할 분담과 분야별 행정 조직	중서성 입안·문하성 심의·상서성 집행
주현	중앙이 지방관을 보내 다스린 지방 행정 구역	주 아래 현·중앙 집권
과거제	시험으로 관리 선발	귀족의 영향력도 유지
균전제	농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	조용조·부병제의 바탕
조용조	곡물(조)·노동(용)·옷감(조)을 부담하게 한 세금 제도	조(곡물)·용(노동)·조(옷감)
부병제	농사를 생활 기반으로 일정한 군역을 부담	농사·훈련·전쟁
절도사	변경의 방어와 군대 지휘를 맡은 관리	군사·재정·행정 권한 확대
안사의 난	안녹산·사사명 등의 반란	755~763·절도사의 반란
황소의 난	당 말기 황소가 이끈 농민 반란	9세기 후반·농민층의 몰락
5대 10국	당 멸망 뒤 여러 왕조·나라로 나뉜 시대	907년 이후

확인 문제

객관식은 맞는 답을 하나만 고르세요.

01 **당의 건국과 수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이세민이 수를 세우고 당의 제도를 없앴어요.

② 이연이 당을 세우고 수의 제도를 모두 없앴어요.

③ 이연이 당을 세우고 수의 통치 제도를 이어받았어요.

④ 이치가 수를 세우고 당의 중앙 조직을 이어받았어요.

02 **당 태종의 활동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통치 체제를 안정시키고 동돌궐을 복속시켰어요.

② 장안을 차지하고 618년에 당을 처음 세웠어요.

③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④ 절도사 세력으로 성장하여 907년에 당을 무너뜨렸어요.

03 지도에서 당 태종이 복속시킨 세력의 위치를 고르세요.

당의 세력 확대와 동서 교역로



① 지도의 ③

② 지도의 ②

③ 지도의 ①과 ②

④ 지도의 ①

04 율령 체제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관리가 법보다 자기 가문의 규칙을 앞세워 지방을 다스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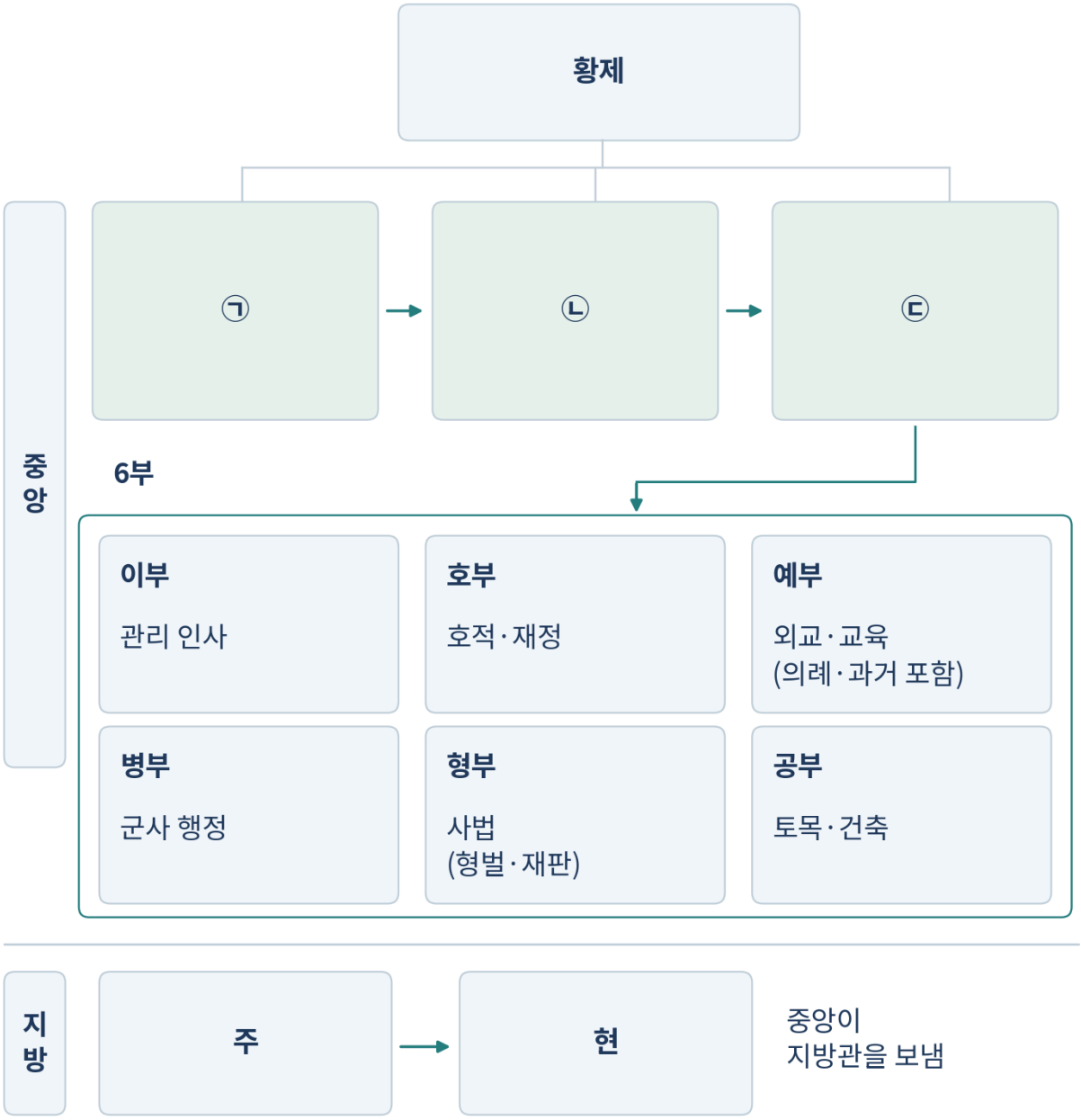
② 형법과 행정법을 바탕으로 여러 통치 제도를 운영했어요.

③ 황제가 모든 농민의 재산을 같게 만들어 토지를 나누었어요.

④ 군사령관이 중앙의 법과 관계없이 각 지역의 왕이 되었어요.

05 도식의 ㉠~㉢ 중 정책 심의를 맡은 관청을 고르세요.

당의 통치 조직



① ㉠

② ㉡

③ ㉢

④ ㉠과 ㉢

06 **3성 6부의 조직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3성은 오늘날의 입법부·행정부·사법부와 같아요.

② 3성은 지방을 다스렸고, 6부는 중앙의 일을 맡았어요.

③ 문하성 아래에 6부를 두어 정책을 입안했어요.

④ 상서성 아래에 6부를 두어 분야별 업무를 처리했어요.

07 **무너진 다리를 고치는 국가 공사의 행정 업무와 가장 가까운 관청은 어디인가요?**

① 공부

② 예부

③ 이부

④ 형부

08 **당이 지방에 주와 현을 두고 관리를 보낸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요?**

① 지방관의 자리를 대대로 물려주어 새 왕조를 세우려 했어요.

② 지방마다 따로 왕을 뽑아 황제의 권한을 넘겨주려 했어요.

③ 중앙의 명령을 지방에 전하고 주민과 세금을 관리하려 했어요.

④ 지방의 군대가 스스로 세금을 정하고 독립하도록 하려 했어요.

09 **과거제가 있던 당에서도 귀족의 영향력이 컸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①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누구나 귀족의 모든 토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②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모두 같아졌기 때문이에요.

③ 과거제는 시험 없이 지방 군사령관만 관리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④ 귀족 가문이 교육 여건·인맥·가문의 지위에서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10 **균전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모든 사람의 재산을 같게 하고 땅을 영원히 나누어 주었어요.

② 국가가 농민에게 일정한 땅을 지급하여 경작하게 했어요.

③ 군사령관에게 지방의 모든 땅과 통치권을 넘겨주었어요.

④ 상인에게 교역로를 나누어 주고 물건값을 거두게 했어요.

11 **조용조에서 조·용·조의 부담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곡물 / 노동 / 옷감
② 옷감 / 곡물 / 노동
③ 노동 / 옷감 / 곡물
④ 곡물 / 옷감 / 노동

12 **조용조의 용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곡물만 내는 세금이어서 일손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② 전쟁에 나가 병사로 복무하는 군역만을 뜻했어요.
③ 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대신 현물을 내기도 했어요.
④ 당의 모든 주민이 매일 똑같은 공사에 참여했어요.

13 **부병제에서 농민과 군역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농사를 생활 기반으로 삼으며 정해진 군역을 맡았어요.
② 농사를 모두 그만두고 모든 농민이 평생 군인이 되었어요.
③ 전쟁이 일어난 때만 모였고 훈련이나 경비는 하지 않았어요.
④ 세금을 거두는 관청 이름을 부병제라고 불렀어요.

14 **농민층의 몰락이 국가에 끼친 영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농민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국가 수입이 늘었어요.
② 농사와 군사 복무의 관계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③ 주민이 이동하면서 국가의 주민 파악이 더 쉬워졌어요.
④ 세금과 병사를 확보하던 국가의 기반이 약해졌어요.

15 **절도사의 원래 역할은 무엇인가요?**

① 중앙에서 정책의 처음 안을 심의하는 일이었어요.
② 변경의 방어와 그 지역 군대의 지휘였어요.
③ 과거 시험에서 모든 합격자를 뽑는 일이었어요.
④ 농민에게 토지를 똑같이 나누는 일이었어요.

16 **안사의 난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황소가 당 말기의 농민을 이끌고 일으킨 반란이에요.

② 서돌궐의 왕이 장안에 들어와 당을 건국한 사건이에요.

③ 당의 군사령관이 중앙에 맞섰고 수도도 피해를 입었어요.

④ 907년에 반란이 시작되어 그해 당이 바로 멸망했어요.

17 **안사의 난을 진압한 뒤에도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진 까닭은 무엇인가요?**

① 모든 지방 군대가 사라져 절도사의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② 지방 군사 세력이 병력과 재정·행정 권한을 쥐었기 때문이에요.

③ 중앙이 지방의 세금을 모두 회수하여 절도사의 재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④ 절도사가 지방 군대의 지휘권을 모두 반납하여 중앙군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18 **황소의 난을 안사의 난과 구별하는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당 말기 농민층의 몰락과 불만을 배경으로 일어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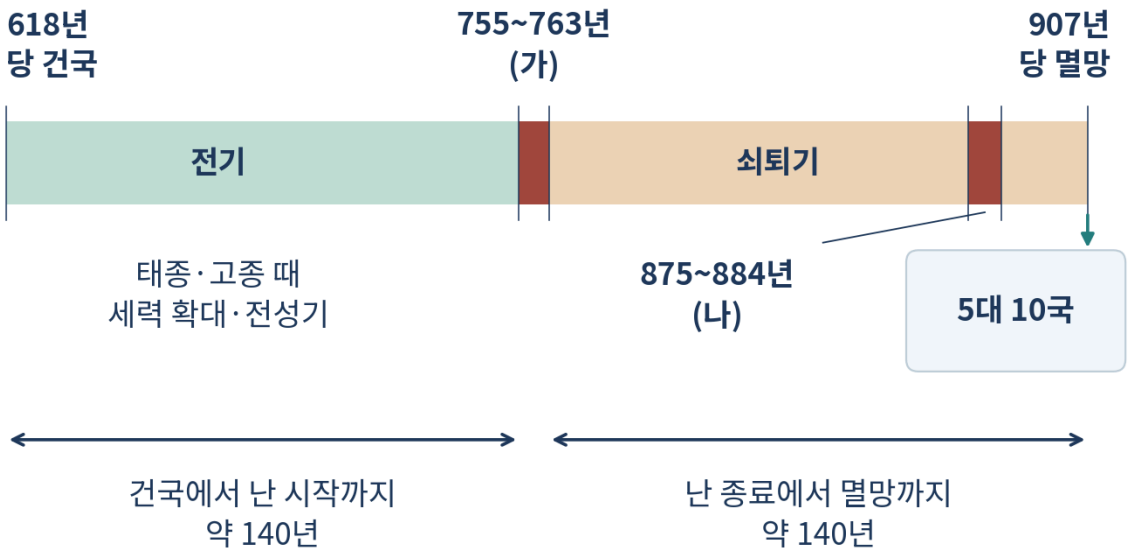
② 당이 세워지기 전에 이연이 군사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③ 당 태종이 동돌궐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정복 전쟁이에요.

④ 안녹산과 사사명이 8세기 중엽에 주도한 반란이에요.

19 연표의 (가)와 (나)에 들어갈 사건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당의 시간 흐름



618~907년 막대는 실제 시간 길이에 비례해요.

① (가) 황소의 난 / (나) 안사의 난
② (가) 안사의 난 / (나) 당 건국
③ (가) 안사의 난 / (나) 황소의 난
④ (가) 당 건국 / (나) 황소의 난

20 당의 통치와 쇠퇴를 설명한 글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과거제를 실시하자 귀족의 힘이 사라져 당이 곧 멸망했어요.
② 균전제가 모든 농민의 재산을 같게 만들어 반란이 사라졌어요.
③ 반란이 끝나자 절도사의 군대와 재정은 모두 즉시 회수됐어요.
④ 농민의 생활 기반과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지며 쇠퇴했어요.

21 그림 ㉠·㉡·㉢에 해당하는 제도의 이름을 쓰세요.

㉠



㉡



㉢



㉠ _____ ㉡ _____ ㉢ _____

22 **한 농민이 농사짓던 땅을 잃고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이런 농민이 늘어나면 국가가 어려워지는 까닭을 세금과 군사 복무에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_____

_____

23 **㉠·㉡에는 반란의 이름을, ㉢에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 8세기 중엽, 안녹산과 사사명 등의 군사 세력이 중앙 정부에 맞섰어요.

㉡ 9세기 후반, 농민들의 어려움과 불만을 배경으로 황소가 이끈 반란이 커졌어요.

㉢ 안사의 난 이후 각 지역에서 (_____)의 권한이 강해져 당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졌어요.

㉠ _____ ㉡ _____ ㉢ _____

24 **"안사의 난이 끝난 763년에 당도 멸망했어."라는 말이 잘못된 까닭을 쇠퇴와 멸망의 차이, 당이 멸망한 해를 포함하여 한 문장으로 쓰세요.**

답 _____

_____

정답·해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③	①	④	②	②	④	①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①	④	②	③	②	①	③	④

확인 01

정답 ③

① 이세민은 당 태종이에요. 수를 세운 인물은 양견(수 문제)이에요.

② 왕조는 바뀌었지만 당은 수의 통치 제도를 이어받아 발전시켰어요.

③ 이연(당 고조)은 618년에 당을 세웠고, 당은 수의 제도를 계승했어요.

④ 이치는 당 고종이에요. 수보다 뒤에 세워진 당의 황제예요.

다시 읽기 Q01~Q02

확인 02

정답 ①

① 당 태종은 통치 체제를 안정시키고 동돌궐을 복속시키는 등 당의 힘을 키웠어요.

② 당 건국은 이연(당 고조)의 활동이에요.

③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것은 고종 때예요. 태종과 고종을 구별해야 해요.

④ 주전충의 활동이에요. 당 태종은 당 전기의 황제예요.

다시 읽기 Q02·Q17

확인 03

정답 ④

① ③은 백제·고구려의 위치예요. 고종 때 신라와 연합해 멸망시켰어요.

② ②는 서돌궐의 주요 활동 지역이에요. 서돌궐을 정복한 황제는 고종이에요.

③ ① 동돌궐은 태종, ② 서돌궐은 고종의 활동과 연결돼요.

④ 태종이 복속시킨 동돌궐은 장안의 북쪽에 표시한 ①이에요.

다시 읽기 Q02~Q03

확인 04

정답 ②

① 율령 체제는 국가의 법과 통치 제도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체제예요. 가문의 규칙을 우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②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 조직·토지·세금·군사 제도를 운영했어요.

③ 균전제도 모든 사람의 재산을 똑같이 만드는 제도가 아니에요. 율령 체제는 토지 제도보다 범위가 넓어요.

④ 중앙의 법에 따른 통치와 반대되는 설명이에요. 절도사도 원래 당 정부가 임명한 관리였어요.

다시 읽기 Q04

확인 05

정답 ②

① ㉠은 중서성이에요. 정책의 처음 안을 만드는 입안을 맡았어요.

② ㉡은 문하성이에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는 심의를 맡았어요.

③ ㉢은 상서성이에요. 결정된 정책을 실행하는 집행을 맡았어요.

④ ㉠은 입안, ㉢은 집행을 맡았어요. 심의를 맡은 곳은 ㉡ 문하성이에요.

다시 읽기 Q05

확인 06

정답 ④

① 3성은 황제 아래의 중앙 관청이에요. 오늘날의 삼권 분립과 같지 않아요.

② 3성과 6부는 모두 중앙의 관청이에요. 지방에는 주와 현을 두었어요.

③ 6부는 문하성이 아니라 상서성 아래에 있었어요. 정책 입안은 중서성의 역할이에요.

④ 상서성은 6부를 통해 분야별 행정 업무를 처리했어요.

다시 읽기 Q05~Q06

확인 07

정답 ①

① 공부는 토목·건축을 맡았으므로 다리 공사와 연결돼요.

② 예부는 외교·교육(의례·과거 포함)을 맡았어요.

③ 이부는 관리를 임명하고 배치하는 인사 업무를 맡았어요.

④ 형부는 사법(형벌·재판)을 맡았어요. 다리 공사와 연결할 관청은 공부예요.

다시 읽기 Q06

확인 08

정답 ③

① 지방관은 왕처럼 자신의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② 당은 왕을 보내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임명하여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③ 주·현과 지방관은 중앙이 지방의 행정과 주민·세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④ 지방의 독립을 허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앙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어요.

다시 읽기 Q07

확인 09

정답 ④

① 과거 합격이 귀족의 모든 토지를 받는 제도였던 것은 아니에요.

② 시험 제도가 생겨도 교육과 관직 진출의 조건이 모두 같아진 것은 아니에요.

③ 과거제는 시험을 통한 선발 제도예요. 절도사를 선발하는 방식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④ 귀족이 가진 교육 여건과 인맥·가문의 지위가 유지되어 영향력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시 읽기 Q08

확인 10

정답 ②

① 균전제는 모든 재산을 같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며, 반환하도록 한 토지도 있었어요.

② 국가는 일정한 토지를 지급해 농민의 경작 기반을 마련하고 세금과 군사력의 바탕으로 삼으려 했어요.

③ 농민의 토지 제도와 지방 군사 세력의 권한 확대를 혼동한 설명이에요.

④ 균전제는 농민의 토지와 경작에 관한 제도예요. 교역로와 상인의 거래에 관한 제도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09

확인 11

정답 ①

① 조(곡물)·용(노동)·조(옷감)의 순서예요. 용은 현물로 대신 내기도 했어요.

② 곡물을 용에, 노동을 조에 놓았어요. 용은 노동과 연결돼요.

③ 노동은 가운데 용이에요. 곡물과 옷감의 자리도 맞지 않아요.

④ 용(노동)과 조(옷감)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다시 읽기 Q10

확인 12

정답 ③

① 곡물을 내는 부담은 조(곡물)에 해당해요. 용은 노동 의무와 연결돼요.

② 용은 조용조의 노동 부담과 연결돼요. 병사로 복무하는 군역과 구별해야 해요.

③ 용은 노동력 부담을 바탕으로 하며, 일정한 경우 현물로 대신 내기도 했어요.

④ 모든 사람이 매일 똑같이 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상과 부담에는 정해진 조건이 있었어요.

다시 읽기 Q10

확인 13

정답 ①

① 부병제는 평소 농사를 짓던 농민이 훈련·경비·전쟁 등의 군역을 맡은 제도예요.

② 모든 농민이 평생 군인이 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복무 대상을 정했어요.

③ 전쟁 때의 복무뿐 아니라 훈련과 경비 등의 의무도 있었어요.

④ 부병제는 군사 제도예요. 세금 제도인 조용조나 관청 이름과 구별해야 해요.

다시 읽기 Q11

확인 14

정답 ④

① 세금을 내는 기반이 줄면 국가의 수입 확보도 어려워져요.

② 생활 기반의 약화는 농사와 군역이 연결된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했어요.

③ 주민이 거주지를 떠나면 국가가 실제 주민과 부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④ 농민층의 몰락으로 생활 기반이 약해지면 세금과 군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졌어요.

다시 읽기 Q12

확인 15

정답 ②

① 정책 심의는 문하성의 역할과 연결돼요.

② 절도사는 당 정부가 변경의 방어와 군대 지휘를 맡긴 군사령관이었어요.

③ 절도사는 과거 시험 담당자가 아니라 군사령관이었어요.

④ 균전제와 절도사의 역할을 혼동했어요. 균전제도 모든 토지를 똑같이 나누는 제도는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3

확인 16

정답 ③

① 황소의 난에 관한 설명이에요. 안사의 난보다 뒤에 일어났어요.

② 안사의 난은 당의 군사 지휘관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당의 건국과도 달라요.

③ 안녹산과 사사명 등의 반란 세력은 뤄양과 장안을 점령했으며, 전쟁이 당의 통치 기반에 큰 타격을 주었어요.

④ 안사의 난은 755~763년의 반란이에요. 당 멸망은 907년이에요.

다시 읽기 Q14·Q16~Q17

확인 17

정답 ②

① 반란 뒤 절도사의 권한은 오히려 강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② 군대와 재정·행정을 장악한 일부 절도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중앙의 명령을 강제하기 어려워져요.

③ 일부 절도사는 지역의 재정을 장악하고 중앙에 세금을 보내지 않기도 했어요. 중앙이 모두 회수했다는 설명은 맞지 않아요.

④ 반란 뒤에도 지방 군사 세력이 남았어요. 절도사가 모든 지휘권을 반납하여 중앙군만 남은 것은 아니에요.

다시 읽기 Q15

확인 18

정답 ①

① 황소의 난은 당 말기 농민층의 몰락과 불만을 배경으로 일어난 농민 반란이에요.

② 수 말기와 당 건국의 상황을 황소의 난과 혼동했어요.

③ 태종의 대외 정복과 당 말기의 농민 반란은 다른 사건이에요.

④ 안사의 난에 관한 설명이에요. 황소의 난은 9세기 후반에 일어났어요.

다시 읽기 Q14·Q16

확인 19

정답 ③

① 안사의 난이 먼저이고 황소의 난이 뒤예요. 두 사건을 반대로 연결했어요.

② (가)는 맞지만, 당 건국은 618년이에요. (나)는 9세기 후반의 황소의 난이에요.

③ (가)는 755~763년 안사의 난, (나)는 9세기 후반 황소의 난이에요.

④ (나)는 맞지만, 당 건국은 618년이에요. (가)는 안사의 난이에요.

다시 읽기 Q14·Q16~Q17

확인 20

정답 ④

① 과거제 실시 뒤에도 귀족의 영향력은 유지되었어요. 이를 당 멸망의 직접 원인으로 연결할 수 없어요.

② 균전제는 재산을 모두 같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며, 반란을 영원히 없앤 것도 아니에요.

③ 반란을 진압한 뒤에도 지방 군사 세력이 권한을 유지하거나 확대했어요.

④ 농민의 기반 약화와 지방 군사 세력의 성장은 세금·병력 확보와 중앙의 통제에 어려움을 주었어요.

다시 읽기 Q08~Q17

확인 21

정답 ㉠ 균전제 / ㉡ 조용조 / ㉢ 부병제

해설 ㉠은 관리가 농민에게 밭의 경계를 안내하는 균전제 장면이에요. ㉡은 곡물과 옷감을 내는 조용조 장면이에요. ㉢은 농사를 생활 기반으로 삼던 농민이 군역을 준비하는 부병제 장면이에요.

다시 읽기 Q09~Q11

확인 22

예시 답 농민의 생활 기반이 무너지면 국가가 그 농민에게서 세금과 군사 복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해설 농민의 어려움은 그 집안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세금과 병사를 확보하던 국가의 기반도 함께 약해졌어요.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국가가 부담 대상을 파악하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농민의 생활 기반 약화가 '세금을 거두기 어려움'과 '군사 복무를 확보하기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뜻이 있으면 돼요. '세금과 병사를 확보하기 어려워져요'라고 써도 돼요.

다시 읽기 Q09·Q11~Q12

확인 23

정답 ㉠ 안사의 난 / ㉡ 황소의 난 / ㉢ 절도사

해설 안사의 난은 절도사가 주도한 군사 반란으로 8세기 중엽에 일어났어요. 황소의 난은 당 말기인 9세기 후반의 농민 반란이에요. 두 반란 모두 당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주도 세력과 시기는 달라요. ㉢의 절도사는 군사·재정·행정 권한을 쥐면서 중앙의 지방 통제력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읽기 Q14~Q16

확인 24

예시 답 안사의 난은 당이 크게 쇠퇴한 계기였고, 당 왕조가 실제로 멸망한 것은 그보다 뒤인 907년이기 때문이에요.

해설 쇠퇴는 힘이 약해지는 과정이고, 멸망은 왕조가 끝나는 것이에요. 안사의 난이 끝난 뒤에도 당은 이어졌어요.

답을 확인하는 기준 '반란 뒤 쇠퇴'와 '907년 멸망'을 구별하면 돼요. '763년은 반란이 끝난 해이고, 당이 끝난 해는 907년이에요'라고 써도 돼요.

다시 읽기 Q17